제 15 호 1995. 6.

나눔터

펴낸곳: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날: 1995년 6월 29일/ 계간 발행/ 주소: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우. 137-600)/ 전화: 02) 576-7127~8

개소 4주년 기념 행사 에서

차 례

이렇게 생각한다 (이명숙/이호) 2

이런일을 했습니다 3

여기는 상담실 4

특집 : 위기상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6

토론마당 : 위기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8

연재기획 : 직장내 성폭력, 알고 예방합시다 ② 10

여성과 몸 12

성문화 읽기 (유지나) 13

만나고 싶었습니다 (변영주) 14

나눔터 알림판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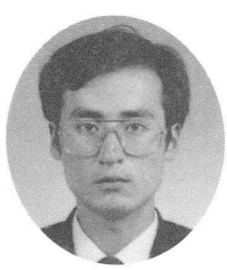
한 국 성 폭 력 상 담 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여성철거민에 대한 성폭력과 성폭력특별법

이명숙(변호사)

일반적으로 다수의 철거반원들이 철거과정에서 철거민들에게 폭행, 협박, 상해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에 해당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야간에 위의 죄가 저질러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해지게 된다. 그런데 지난 4월 26일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 6동 철거민 전씨에 대한 철거반원들의 집단 폭행은 그 대상이 여성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킨 후 반항이나 항거를 불능케 할 불순한 의도에서, 단순한 폭력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위의 일반적인 경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철거반원들은 전씨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구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씨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에 연탄재를 집어 넣는가 하면 그 위를 마구 짓밟아서 연탄재가 허벅지 등 살 속으로까지 박히는 잔인하고 끔찍한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건장한 남성들로 이루어진 철거반원들이 한명의 여성을 둘러싼 후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에 연탄재를 집어 넣는 등의 행위는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 즉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한 처벌도 가능해지게 된다.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전모씨를 성폭행한 철거반원들은 강제추행 및 그로 인한 상해까지 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률상으로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위 법 제9조 제1항, 제6조 제2항) 한편 전씨가 철거 과정에서 철거반원들에게 항거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느냐도 문제될 수 있으나, 철거가 공식 집행되려면 구청의 집행결정과 법원의 영장 발부, 그리고 경찰의 입회가 있어야 하는데 전씨의 경우는 철거가 공식 집행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실상 철거민들의 반항을 저지할 목적으로 철거반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폭력이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전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나아가 전씨는 위 철거반원들이 소속된 용역회사 및 관악구청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철거, 연탄재 그리고 성폭력



이호(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로 달려가는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은 수난을 겪는다고 한다. 그것은 철거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철거지역은 마치 심한 융단 폭격이 휩쓸고 지나간 전쟁터와 흡사하다. 세계도시의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이곳에서는 불법적인 폭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 폭력의 당사자들은 철거를 하려는 자들과 이를 막고자 하는 주민들이다. 이러한 대립은 보통 힘 약한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싸움으로 끝난다. 지난 4월 26일 봉천 6동에서 벌어진 사건은 '철거' 과정의 폭력에 흔히 동반되는 사건이다. 다음날 모든 중앙일간지는 봉천 6동의 철거민 전씨가 철거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하의에 연탄재를 넣고 짓밟혔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사건이 특히 언론을 타게 된 것은 폭력의 성격이 '성폭력'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철거지역에서의 이러한 반인륜적 폭력사건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난해 하왕 2-1지구에서도 팬티만 입은 반나체의 철거용역반원이 한 젊은 아주머니를 쓰러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전씨와 같은 지역에서 세입자들과 철거용역반원의 충돌 중 한 아주머니가 깡패들에게 국부를 발로 집중적으로 짓밟혀 심하게 하혈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를 일일이 들자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봉천 6동의 사례를 접하며 다른 철거지역의 사례를 드는 것은 봉천 6동의 사례가 별로 새삼스러울게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터에서와 같이 철거지역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철거지역의 폭력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과정에서 돌출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관할 경찰서 및 관할 공무원들 조차도 철거지역의 폭력이 주민들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개입을 꺼리고 있어서 철거지역의 폭력사태는 가히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는 현행 재개발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봉천 6동의 성폭력 사태를 계기로 철거지역에서 더 이상 폭력이 자행되지 못하도록 재개발 제도의 개정 및 관할 행정관청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상담소 개소 4주년 기념식

본 상담소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성폭력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문을 연 지 올해로 4돌이 되었다. 이번 개소 행사로는 93년 12월 13일 개설한 후 올해까지 1년 5개월간 활동한 위기센터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4월 21일 홍사단 대강당에서 가졌다. 『함께하는 위기센터를 위하여』란 제목하에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이우정 위원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위기센터가 문을 여는데 큰 힘이 되어주신 문국진 박사에게 감사패를, 개소 이래 줄곧 활동해 온 상담원, 나눔이, 지킴이에 대해 공로상을 수여했다. 그리고 「위기상담 사례분석」 발표와 「위기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란 토론회를 마련하여 이전까지의 위기센터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 위기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기념축하 노래를 하는 본 상담소 노래패 「노래도적」

성희롱 추방 거리 캠페인 실시

본 상담소가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한 『성희롱 추방 거리 캠페인』이 지난 4월 27일 명동성당 앞에서 있었다. 이번 거리 캠페인의 목적은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에 대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 건의하는 것과 사건의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는데 있었는데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다.

미군에 의한 성희롱 규탄 시위

본 상담소에서는 지난 5월 19일 발생한 미군의 성추행 및 집단 폭행에 대한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했다.

또한 지난 5월 30일에는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과 함께 미군에 의한 성희롱 규탄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제4기 지킴이 활동 시작

24시간 운영되는 위기센터에서 위기상담을 시작하며 기본적인 심리상담을 하고 병원과 경찰 그리고 상담원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지킴이들이 새 식구를 맞이했다. 8회에 걸친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친 여자지킴이 38명, 남자지킴이 14명이 5월 27일 제 4기 지킴이 수료식 후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활동하던 지킴이 57명을 포함 총 109명의 지킴이가 현재 위기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 8회에 걸친 강의를 듣는 지킴이들

제7기 상담원 교육 시작

제7기 상담원 교육이 5월 11일부터 본 상담소 교육실에서 시작되었다. 6월 22일까지 일주일에 두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본 상담소가 작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고 처음 갖는 교육이다. 교육생들은 교육이 모두 끝나고 한달간의 실습 교육을 마친 후 본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 강의 중 토론에 참여하는 7기 상담원 교육생

일반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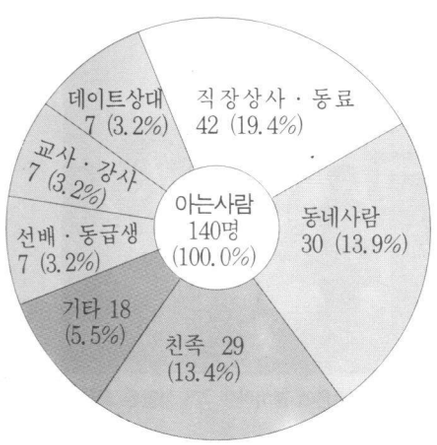
본 상담소에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498회에 걸쳐 285건의 상담을 받았다 〈표1〉 참조.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216건으로 전체의 75.8%를 차지하였다.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이 56%, 14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이 21.8%,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22.1%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전화로 이루어진 상담이었고 본인상담과 대리상담 비율은 282회(57.7%) : 216회(43.7%)로 나타났다. 대리상담자는 부모, 형제, 친구, 동료, 선생님, 이웃, 타기관 상담원, 경찰 순이었다.

후속처리 로는

- 재상담이 213회, 면접상담 19건 42회, 서신상담 2건
- 경찰수사로 연계된 사례(고소된 이후의 상담 포함) 49건
- 병원 연계 사례(산부인과, 외과, 정신과) 53건
- 토요법률상담에 의뢰하여 변호사 면접 12건, 사례검토 38건
- 열림터에 연계한 사례 5건
- 내담자에게 상담소 자료 지원 32건
- 법정지원 사례 진정서 쓰기 1건, 법정동행 2건, 법정증언 1건
- 지속상담(5~10회이상 심리적 후유증 극복상담) 사례 23건
- 타상담기관이나 위탁시설로 연계한 사례 12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아는 사람 140건, 모르는 사람 60건으로 유형별로는 〈그림1〉과 같다.



〔그림1〕

〈표1〉 상담 분류표 1995년 1월 - 3월

유형			가해자			피해자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소계	고소
성폭력	성폭행 135 (62.5%)	일반강간 123 (56.9%)	아는사람 86 (39.8%)	친족 7.8%	아버지 · 오빠 (3.2%)		4	3			7	
					친 · 인척 (4.6%)	5	2	3			10	
					동네사람 (6.0%)	5	1	6	1		13	3
					데이트 상대 (2.3%)	4	1				5	
					직장상사 · 동료 (11.5%)	23	2				25	3
					교사 · 강사 (2.3%)	3	2				5	
					동급생 · 선배 (2.8%)	2	3	1			6	
					기타 (6.9%)	11	3	1			15	2
					모르는사람 (13.4%)	13	11	4	1		29	2
					미상 (3.7%)	5	2	1			8	
					윤간 (5.6%)	8	4				12	3
	성추행 65 (30.0%)	일반성추행 60 (27.8%)	아는사람 54 (25.0%)	친족 5.6%	아버지 · 오빠 (1.8%)	1		2	1		4	
					친 · 인척 (3.7%)	1	1	2	4		8	
					동네사람 (7.9%)	4	2	5	6		17	2
					데이트 상대 (0.1%)	2					2	
					직장상사 · 동료 (7.9%)	16	1				17	2
					교사 · 강사 (0.1%)	1			1		2	
					동급생 · 선배 (0.05%)	1					1	
					기타 (1.4%)	2			1		3	
					모르는사람 (2.3%)	1		2	2		5	1
					미상 (4.6%)			1			1	
					강간미수 (4.2%)	3	1	1			5	
	언어추행					9	1				10	
	남성피해					1	7	1			9	
계						121 (56%)	47 (21.8%)	33 (15.2%)	15 (6.9%)		216	18
기타	성문제 · 순결					14	2	1			17	
	인신매매											
	아내구타					5					5	
	혼인빙자					2					2	
	장난전화					9	4				13	
	기타					27	1	1		1	30	1
계						57	7	2		2	68	1
계						178	54	35	15	3	285	19
재상담	강간					113	5	9	2		129	26
	성추행					41	1	25	4		71	4
	남성피해						2				2	
	기타					9	1	1			11	
계						163	9	35	6		213	30
총계						341	63	70	21	3	498	49 (22.7%)

위기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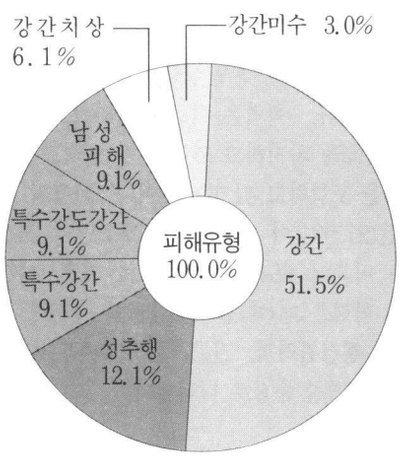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위기상담은 총 33건으로 그 피해유형은 〈그림2〉와 같다. 강간이 51.5%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위기상담의 경우 남성피해가 항상 1~2%정도였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9.1%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3〉. 피해자의 연령은 성인이 가장 많은 45.5%, 청소년이 30.3%, 어린이가 15.1%, 유아가 9.1%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4〉. 피해자 연령에서는 여전히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24.2%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어린이 성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위기상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병원 및 경찰의 연계비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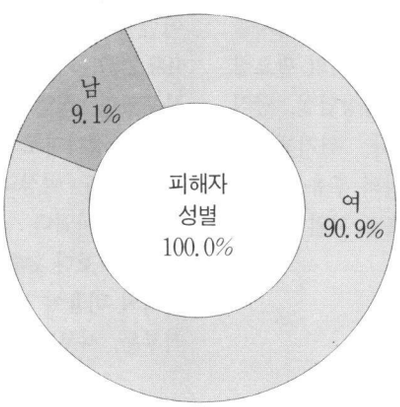
먼저 병원연계에는 산부인과에 연계하여 증거채취 및 의료적 처치를 함께 한 경우들이 있고, 정신과에 연계한 경우들이 있었다. 산부인과 연계는 전체 위기상담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

정신과 연계는 전체 위기상담의 3.0%를 차지했다. 피해 직후 즉각적으로 상담을 청해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증거채취의 중요성과 의료적 처치에 대해 가장 급박하게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정신과에 대한 연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1차적인 심리상담을 상담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를 요청할 정도의 심각한 상담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정신과 연계의 경우는 이후의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많이 필요로 한다. 이번 위기상담의 경우는 어린이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염려한 내담자가 정신과 연계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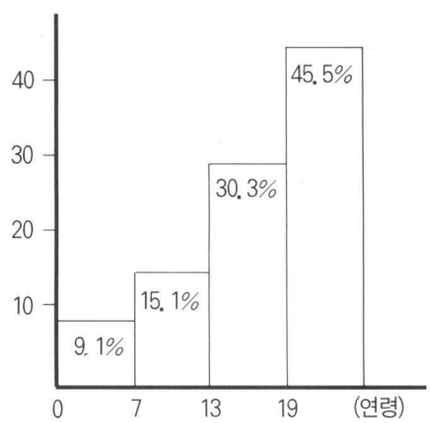
경찰연계는 총 3건으로 전체 위기상담 중 9.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청해서 연계한 경우는 전체 위기상담의 3.0%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에는 경찰연계가 어느때 보다 저조했다. 그러나 본 상담소에서 토요법률상담을 실시한 3월부터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직접적인 경찰과의 연계보다는 변호사 면담 이후에 고소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2〕 피해유형



〔그림3〕 피해자 성별



〔그림4〕 피해자 연령

열림터

열림터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피난처겸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간 단계 또는 중재단계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열림터 내담자는 주로 어머니의 보호나 가족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내담자의 환경은 어머니는 있지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못해냈을 뿐만 아니라 의존적이고 무기력하여 강간하는 남편에게서 딸을 보호하지 못하였다. 물론 어머니의 역할이 부진하다하여 남편이 딸을 성폭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딸을 보호하겠다는 어머니의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토록 오랜 세월을 아픔과 분노로 상처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가해자의 특성을 보면 폭력적이고 지배적이고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간섭하고 개입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피해자의 후유증을 보면 일반 성폭력 피해자들 보다 그 정도가 심각한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인 후유증으로 분노, 우울, 죄책감, 순결상실감, 자기비하감 등이 있는데 그 심연 밑바닥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의 두꺼운 장벽이 깔려 있으며 어머니에 대한 원망, 배신감 이 세상 인간들에 대한 불신을 넘어 분노가 가득차 있다. 이러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개별 면접 상담과 성폭력, 여성문제 관련 도서, 비디오 등을 관람하여 자신의 의식을 재점검하고 성폭력 피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한다. 또한 열림터는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결해야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생활은 역할 분담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끼리 자매애를 키우게 된다. 열림터 내담자 프로그램은 열림터 운영위원들의 활동으로 이루어 지며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내담자끼리 시장보기, 꽃 구경가기, 서점에 들르기 등이 있다.

직접적인 내담자 지원으로는 변호사 면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임상테스트, 산부인과 진료, 진단서 발급, 내담자 담임 교사 면담, 가해 부모 면담 등이 이루어졌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내담자가 심리적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타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

열림터 운영에는 6인의 운영위원과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며 재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여 좀 더 질 좋은 내담자 지원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위기상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개소 4주년 기념으로 위기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자료집을 냈다. 이 자료집에서는 위기상담의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여 위기센터의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또한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책과 위기센터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보았다. 이번 나눔터 특집에서는 이 자료집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센터의 기능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했다.

본 상담소에서는 피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상담을 하거나 고소하는 경우, 물적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난관에 부딪히는 내담자들을 보면서 신속한 증거채취와 경찰연계가 가능한 위기센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1993년 12월 13일 증거채취실, 면접상담실, 당직실을 갖추고 24시간 운영되는 위기센터를 개설하였다. 위기센터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법적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1.실 태

위기센터가 개설된 이래 1995년 2월까지 접수된 위기상담 횟수는 지속상담 135회를 포함하여 총 357회이다. 총 상담 1993건중 11.1%를 차지한 위기상담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 피해유형은 〈그림1〉과 같다.

피	해	유	형	건수(%)
성폭력	성폭행	강간		94(42.3)
		강도강간(특수포함)		12(5.4)
		강간치상		12(5.4)
		특수강간(윤간포함)		22(9.9)
		소계		140(63.0)
	성추행			47(21.2)
	강간미수			26(11.7)
	남성피해			9(4.1)
	총계			222(100.0)

2.특 성

피해자 연령은 20대 이상의 성인이 93건(41.9%), 19세 이하는 120건(54.1%)으로 미성년자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체의 32.0%를 차지했다. 혼인상태는 미혼 198건(89.2%), 기혼 24건(10.8%)이었다. 학력은 미상을 제외하고 고른 분포였다. 직업은 학생이 4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교생부터 대학생까지로 많은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 연령은 20세 이상의 성인 62건(27,9%)이 가장 많고 청소년이 23건(10.4%)이었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65건(29.3%)으로 기혼 24건(10.8%)보다 2배 가량 많다. 학력은 대(재)졸이 8.1%를 차지해 고학력의 비율이 높았다. 직업은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무직, 비공식부문,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경찰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가해자이고 여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총 213건(95.9%)을 차지해, 성폭력이 대(對)여성폭력임을 입증하고 있다.
피해장소는 옥내(63.1%)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성폭력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발생 시각은 06시부터 12시까지의 오전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수치를 보여 성폭력 피해는 특정한 시간대가 없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아는 사람인 경우(53.2%)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네사람, 직장상사나 동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3.후유증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은 정신적 후유증과 신체적 후유증이 있다. 정신적 후유증에는 '우울, 불안, 공포'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분노, 순결상실감, 죄의식과 정신과 치료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피해자의 대부분이 피해초기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피해와 불안을 묻어버리려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정신적 후유증은 상당히 크리라 예측된다.
신체적 후유증으로는 타박상이나 골절 등 상해가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처녀막 파열이 38건이었다. 임신이 되었을 경우 법적으로는 질병이나 상해로 보지 않아 치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어떤 상해보다도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4. 후속처리

내담자의 도움 요청 내용은 대처방안에 대한 단순문의가 많았고 다음으로는 심리적 도움과 법적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1) 법률적 지원

법적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44건이었다. 그러나 후속조치로 인한 증거채취는 119건으로 본 센터 증거채취실에서 14건, 연계병원에서 105건이 이루어졌다.

경찰연계는 41건으로 병원연계와 동시에 이루어진 26건, 경찰연계만을 했던 사례가 15건이었다. 이 중에는 피해 후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가해자를 검거했던 사례도 있다.

2) 의료적 지원

병원연계는 총 상담건수 222건 중 119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를 위한 증거확보 보다는 외상의 치료나 성병, 임신유무에 대한 검사를 위해 병원연계를 한 경우가 많았다. 병원연계와 경찰연계가 함께 이루어진 26건은 병원연계로 증거를 확충하고 신고 및 고소를 한 경우들로 신고 및 고소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

3) 심리적 지원

피해직후 혼란과 공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는 내담자를 안정시키고 상황을 판단하여 스스로 모든 결정을 하게 한다.

5. 위기센터의 성과

첫째, 국내 최초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24시간 상담함으로써 성폭력에 적극 대응하고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증거 채취와 의료적 처치를 실시했다. 그리고 관심있는 의료진간에 연계망을 구축하고 산부인과, 외과 전문의, 법의학자들이 모여 가해자 식별과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검사목록을 통일, 체계화 해 보급했다

셋째, 경찰과의 연계망을 갖춰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넷째, 피해직후 당황하는 내담자들을 안정시키고 각종 정보를 주어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다섯째, 우리 사회의 성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활동가들의 폭을 넓혔다. 성폭력 문제는 남성 가해자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왜곡된 성문화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기에 남녀가 함께 풀어야 한다는데 착안하여 처음으로 남자 자원활동가를 모집하였으며 많은 역할들을 해내고 있다.

6. 위기센터의 문제점

첫째, 위기상담의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이다. 현재 공휴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야간과 공휴일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전문인력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위촉의의 부족이다. 위촉의가 배정되어 있지 않은 시간에는 지킴이들이 내담자에게 본 센터로 올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연계하고 있는 병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내담자들이 먼 거리를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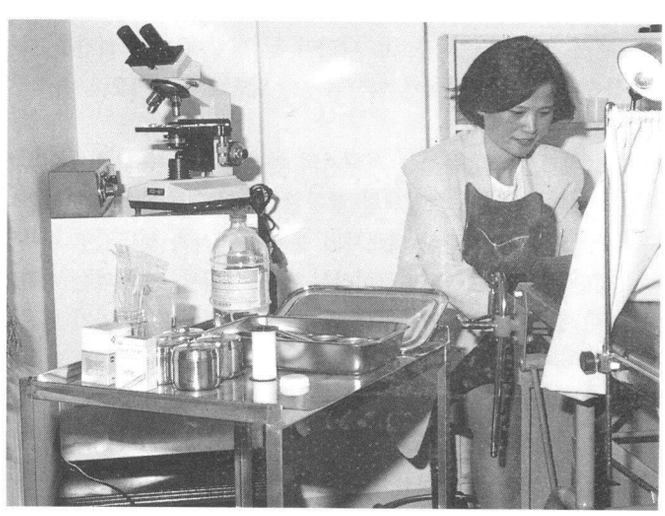
넷째, 상담원의 불충분으로 지속상담으로 이끌어 내지 못했다. 심리적인 지속상담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상담원 확보가 시급하다.

다섯째, 성폭력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왜곡된 인식이다.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경찰의 사건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없는 올바른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다

1년 5개월 동안 위기센터는 24시간 지원체계를 갖추고 의료적, 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지속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활동을 했다. 특히 즉각적인 증거채취를 기반으로 법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즉각적인 경찰연계를 하여 가해자 검거를 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위기상담 사례분석에서 밝혀졌듯이 앞으로 위기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기상담원과 위촉의 확보, 연계병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의 협조가 원활해져 각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 경찰이 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있지만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경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고, 세금혜택을 주는 등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직후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돕는 위기센터가 있다는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될 때 비로소 위기센터의 기능수행이 완전해지고, 진정 우리사회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 본 상담소 증거채취실

위기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본 상담소 개소 4주년을 맞아 위기센터 활성화를 위한 토론마당이 열렸습니다.
이 토론마당은 위기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각 전문가
집단(의료, 법률, 경찰)의 의견을 모아 보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 : 김강자(노원경찰서 방범과장) 이종걸(변호사)
문국진(고대법의학 명예교수) 최보문(신경정신과 전문의)
박금자(박금자산부인과 원장) 최영애(본상담소 소장) : 사회

사회 : 위기센터가 문을 연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최초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기능을 해 온 위기센터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위기센터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문국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국진 : 위기센터의 목적은 피해자의 완전한 사회복귀 즉, '어떻게 단시일 안에 복귀해서 그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할까'라고 봅니다. 의학적으로 볼때 강간 피해자의 문제는 임신과 성병감염 여부입니다. 배란 가운데는 공포배란이라는 것이 있어서 주기와는 상관없이 배란이 될 수 있고 가해자의 대다수가 성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간피해는 친고죄로, 강간치상죄는 비친고죄로 다스리는데 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처녀막에 파열이 있으면 상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받으면 강간사건이 아닌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로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를 안해도 비친고죄로써 당연히 벌할 수 있습니다. 저항도 치상요건이 될 수 있고 치상증명서 발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진단서는 법적으로 단순 강간사건이 아닌 강간치상이 되는 중요 증거입니다.

피해 후 48시간 이내의 사고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해, 이것이 바로 위기센터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연계병원이 모자라는 고충은 각종 의사전문기관에 떠맡기기 보다는 자진해서 봉사로 나설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 :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의학적 처치와 강간피해의 입증이 중요하고 이는 위촉의의 확대로 가능해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산부인과 전문의이면서 본 상담소 대표이사로 계시는 박금자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박금자 : 무엇보다도 의료진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의료진을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또한 경미한 상처에 대해서는 즉시 치료 가능한 공간적 확보가 요구되는데, 상담소와 위기센터의 치료실을 넓히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다. 위기센터에서의 엠블란스 운영과 위기센터 연계병원의 지역별 확대 및 연계병원간 연대도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12시간내 신고하는 여성들에게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센터에 정신과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회 : 위기센터가 기능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위기센터가 꼭 해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보문 선생님께서 왜 피해자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한지, 어떤 조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보문 : 2, 3년 전부터는 성폭력을 당하고 나서 곧바로 정신과로 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급성환자들에게는 성폭력 후유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환자들의 '어떻게 할까요'라는 질문에는 정신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위기센터의 담당으로 위기센터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검찰 조사까지의 과정이 하나로 되고, 이것이 법정에서도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아동전문의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은 수십번의 단계를 거치면서 자기상황을 얘기하다 보면 자기암시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7세 이하의 아동은 여러 인지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두 세번 질문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부부의 성생활도 심각하게 파괴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에 대한 죄책감(특히 아버지의 경우)등에 대한 심리적 재건 과정 즉 가족치료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이 위기센터와 연결되었으면 합니다.

사회 :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상담원과 경찰이 함께 수사를 진행해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센터에는 수사관이 직접 와서 조서를 써서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준 바람직한 사례도 있습니다. 연계 수사로 범인 검거까지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김강자경정님께 진심으로 고마움의 뜻을 전하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강자 : 경찰도 성에 대해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성폭력을 다루는 기술도 없습니다.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완전 백지상태이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바라는 것은 이런 분위기와 환경하에서는 성폭력을 이해하고 피해자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경찰이 위기센터와 연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검거조, 조사조, 사후처리조가 있어야 합니다. 흉악범 주위에 흉악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고소한 사람(피해자)의 신변보호 등을 사후처리조로 만들어 위기센터와 연계한다면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로서는 미미하게 도와주고 있지만 위기센터에서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 : 근친성폭력인 경우 가해자의 딸을 보호하고 있을 때 공포가 많았습니다. 경찰이 함께 해 줄때 위기센터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적 측면에 대해서 이종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십시요.

이종걸 : 위기센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단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센터를 찾는 피해자에게 정말 도움에 대한 직접적 성과를 안겨 주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처럼 온순한 피해자들은 없습니다. 가해자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한 태도를 견지 합니다. 게다가 정당방위에 대한 검찰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무기사용 등은 더군다나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기센터에서는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빙성, 증거력, 증거가치가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담일지도 바뀌었으면 하는데, 일방적으로 적는게 아니라, 물음형식으로 가해자의 잘못된 점을 끄집어 내는 유리한 방식으로 상담일지가 기록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 : 네, 증거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까지 위기센터 발전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오늘 참여해 주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위기센터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참여를 더욱 높여 성폭력 전문 상담소로써의 위상을 갖춰 나가야 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참석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승하 기자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이 세간의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부쩍 본 상담소에도 직장내 성폭력에 관한 상담이 늘고 있다. 1991년 4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접수된 강간, 성추행에 관한 상담은 4,351건(총 상담건수는 7,000여 회)인데 이 중에서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480건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한다.

직장내 성폭력의 피해자는 10대와 20대 여성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20대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64.1%) 취업여성 중 이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 노동구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여성이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직장의 꽃'으로만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과연 직장내 성폭력은 직장에서 어떤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까?

이렇게 일어납니다

업무핑계 고등학교 졸업 후 경리로 입사하던 바로 첫날, 사장이 업무상 급한 일이 있다하여 나갔으나 못먹는 술만 잔뜩 먹이고는 여관에서 강간.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자신이 오히려 무고죄로 걸리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승소하여 무고죄혐의도 벗고 가해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1992년, 사례 1)

위계와 권력으로 꼼짝못하게 함 모 중학교에서 일요일에 일직하러 나온 여교사를 교장이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운 후 교외로 나가서 강간함. 그 학교 설립자의 아들이기도 한 가해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교직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다. (1992, 사례 2)

완력, 구타 모 유통 도매센터 지하창고에서 남자동료와 둘만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동료가 달려들어 강간하려 함.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가해자는 얼굴과 배를 구타하고 옆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청바지를 갈기갈기 찢음.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한 후 강간피해보다 더 힘든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었지만 끝까지 잘 이겨내어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1993, 사례 3)

유인, 속임수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일요일날 교외로 드라이브나 가자는 제의를 받고 망설였으나 연배도 지긋하고 평판이 좋은 분이라 안심하고 따라나섬. 집에 갈 시간이 되자 거래처 사장은 "술기운 때문에 운전을 못하겠으니 여관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여 피해자는 정말 '쉬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가해자가 강간하려 하자 밀치고 도망쳐 나옴. (1994, 사례 4)

고용과 승진을 미끼로, 또는 해고의 위협 모 대학 화학과 조교로 들어간 피해자는 담당교수로부터 기기조작을 핑계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음란한 시선에 시달려야 했다. 가해자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자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피해자가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가해자는 공연히 업무상 트집을 잡더니 결국에는 피해자를 조교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그동안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의 '성희롱'에 대한 민사재판이 되었다. (1994, 사례 5)

회식자리에서의 진한 농담, 추행 모 회사 생산과장이 망년회자리에서 여자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앉더니 이사람 저사람에게 술을 권한 뒤 손으로 옆자리에 앉은 여사원의 사타구니 밑을 더듬는 등 추행. 기혼자인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오늘밤 나랑 여보하자, 넌 내거야"라는 치욕스런 말도 들어야 했다. (1995, 사례 6)

지난 호에서 직장내 성폭력은 직장에서의 위계나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듯이 가해자 중에는 고용주나 직장상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용주: 127명(26.4%), 상사: 188명(39.2%)〕 그러나 사례 3,4 의 경우처럼 직급이 낮은 동료직원이나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동료: 85명(17.7%), 거래처: 35명(9.4%)〕 직장내 성폭력의 배경이 되는 '직장'이라는 용어가 직장(workspace)으로서의 공간적 의미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직장의 규모는 사례 1,4,6의 경우처럼 1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 20건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일을 단순 보조업무 정도로 취급하는 회사라든지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단체결성이 불가한 직장에서 직장내 성폭력은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입사 후 3년 이내에 피해 입은 경우가 68건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나라의 일부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상업문화에서 여성을 '영계'에 비유하며 하룻볕이라도 늦게 태어난 여성을 찾기에 안감힘을 쏟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례 6의 피해자는 기혼자인데도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여성이 성폭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직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계속해서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는 과연 어떤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 언어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

미리 예방합시다

• 평소 싫고 좋은 것에 대한 의사표현 을 분명히 하고, 공·사를 구분한다.
• 전임자에게 전에 성폭력사건이 있었 는지 알아본다. 소규모 사무실에서 자주 여직원이 바뀌었다면 일단 경계하고 입사를 신중히 검토해본다.
• 음담패설에 끼어들어 동조하지 않는다. 음란한 사진이나 물건을 공공연히 부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겐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 자신의 언행이 공신력이 있도록 맡 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회식이나 기타 술자리에서 과음하지 말고, 귀가시 차편제공을 받을 때는 주의해서 타도록 한다.
• 상사나 동료가 업무이외의 일로 회사출근을 요구할 때는 동료에게 확인 하고 되도록 혼자가지 않는다.
• 상습적으로 부인과의 불화나 고독을 토로하며 접근하는 상사나 동료를 경계한다.
• 평소 호신술을 배워두거나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한다. 이는 자신있는 태도에도 도움이 된다.
• 성폭력을 당한 동료가 있으면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대처한다.
• 회사에 성폭력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한 사규제정을 건의한다.

을 때는 특별한 외상(外傷)없이도 마음에 멍이들 수 있고 강간을 당하면 처녀막 파열, 질파열, 성병, 타박상, 심지어는 임신이나 임신중절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사례 3은 가해자가 가위라는 흉기를 지녔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칫 목숨까지 잃을뻔한 경우였다.

경제적 피해 여성들은 직장내 성폭력으로 인해 직장포기의 압력을 받아 근무처를 이동하거나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사례 1의 피해자는 첫월급을 받기는 커녕 비싼 재판비용을 물어야 했으며 사례 2의 경우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좌천당했고, 사례 5의 피해자 역시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닌 것으로 상정할 때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년 여의 재판과정 동안 많은 비용이 들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심리적인 피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특히 심리적인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신의 행복에 금이 가게 한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강한 복수심으로 변해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런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때 피해자는 자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사례3의 피해자는 살인과 자살충동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나 심리적치유를 위한 지속적인 면접상담을 통해 지난했던 재판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다.

졸업을 앞두고 사회에 진출할 꿈에 부풀어 있는 많은 여고졸업반·여대생들, 그리고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막 입사한 새내기 사원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지 못하고 암울한 이야기만을 전달한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직장을 가진 우리 여성들의 현실이다. 눈감은 행복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힘들지만 알고 이겨나갈 것인가? 그러나 모른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실제 이런 일은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 결심했어. 어둡고 습한 질곡을 벗어나 여성의 당당함을 보여주자" 이렇게 결심한 예비 직장여성과 직장여성을 위해 이제 직장내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요령을 소개한다.

이렇게 하세요!

①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는 가해자에게 그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거부의사는 때와 장소, 친분관계에 따라 재치있게 표현할 수도 있다.
② 피해가 지속될 경우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거나 편지를 쓰는 등 비공식적인 항의를 할 수 있다. 이 때 협박이나 위협을 하면 곤란하다.
③ 비공식적인 항의를 했는데도 피해가 계속된다면 공식적인 항의를 한다.
• 다른 여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또 다 른 피해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공동대처한다.
• 회사내에 노조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있다면 여기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여럿일 때 더욱 유리하다. 이때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건진술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 동조하는 직원들의 서명을 받는 것도 잊지말자. 객관성을 위해선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의 서명을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④ 위와 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가해자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거나 회사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현행법상 직장내 성희롱에 관해서는 성희롱으로 인한 유형적(해고, 부당한 처우), 무형적(정신적 피해)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실과 그로 인한 자신의 업무장애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의 의무를 지닌다.
⑤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위해선 주변에 이 사실을 이야기 하고, 사건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한다.
• 평소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인다.
• 자료는 사무실보다는 집이나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 가능하면 주변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모아둔다. (기록, 녹음 등)
⑥ 여성단체나 상담기관에 상담한다.

요즘 인구에 회자되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다'라는 문구는 직장내 성폭력의 예방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입사를 앞두고 챠밍스쿨이나 메이크 업 교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외모가꾸기에만 치중하는 것을 입사준비 완료로 착각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 좀 더 근본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직장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지. 이에 발맞추어 본 상담소에서는 직장내 성폭력 예방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으며 8월중에 완성될 예정이다. 또한 직장내 성폭력예방을 위한 책자도 단행본으로 보완해서 발간할 계획이다.

요즘 모기업에서 부모사랑 효캠페인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다음번엔 직장내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여보도록 하면 어떨까? 아마도 그 홍보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연민이 기자

월경 이야기 (2)

지난호에 실렸던 월경이야기(1)에서는 월경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월경에 관련된 병과 그밖에 월경에 얽힌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1. 무월경에 대해 못다한 이야기

일종의 이상증상으로 여겨지는 무월경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가 있듯이 그 원인을 4가지 정도로 꼽고 있다. (간뇌, 뇌하수체, 난소, 자궁의 이상) 또한, 부신피질이나 갑상선이라고 하는 내분비선도 간뇌하수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것이 무월경의 원인이 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부위들이 이상을 일으키게 되는 더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기에 단순한 원인분석은 힘들다. 그러므로 함부로 약이나 홀몬제를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선천적 무월경의 경우에는 질결손증이라는 경우와 쇄음이라고 하는 기형의 경우 때문에 월경은 있는데 월경 피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양자의 경우 모두 드문 것이기는 하나 18세가 되어도 월경이 없을 때에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2. 희발월경과 빈발월경

무월경은 아니지만 개개인에 따라서는 2-3개월에 한번밖에 월경이 없는 희발월경이라는 것이 있다. 월경주기가 남보다 길어도 일정한 배란주기가 있다면 꼭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1년에 1-2번밖에 배란하지 않지만 아이를 2명이나 가진 사람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즉, 희발월경인 경우에는 자신이 배란의 유무를 기초체온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월경주기가 25일보다 짧은 빈발월경이라는 것이 있다. 특히 주기가 20일 전후인 경우에는 난소의 기능이 나쁘고 배란이 없거나, 황체기능이 나쁜 사람이 많으며 자궁근종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꼭 진단을 받아보아야 한다.

3. 과소월경과 과다월경

과소월경은 주기와는 관계없이 월경의 양이 이상하게 적은 것을 말하는데 난소기능의 이상이나 자궁의 발육부진이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아 배란도 있고 황체기능도 정상적이고 자궁의 발육도 정상인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월경의 양이 이상하게 많은 것이 과다월경인데 주기가 짧아져서 빈발과다월경이 될 때도 있다. 이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어 홀몬의 이상에 의한 것 외에 자궁근종, 암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혈소판 감소증 등의 혈액병이 원인이 되는 수도 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심한 빈혈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한다.

4. 월경전의 증상

월경이 시작하기 전에 몸이 긴장을 하면서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유방이 땡기거나 팽창하고 얼굴이나 발이 붓고 졸리고, 토하고 싶은 생각이 나기도 한다. 대개의 여성들은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신체적인 증상을 생리통이라 부르며 두통약 등을 사서 먹는 것이 보편적이다. 결혼전에는 생리통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중년이 되니까 아프다는 경우, 그 정반대로 심한 생리통이 있었는데 결혼이후 씻은듯이 사라졌다는 경우도 있다.

또한 두통이나 요통 이외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신경이 날카로와져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잘 내게 된다거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증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증상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있다고 해서 문제를 가진, 불완전한 인간으로 여성을 치부한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리전 증상을 너무 민감하게 여기기보다는 평상시에 적당한 운동을 하고, 월경이 다가오면 마음을 더욱 여유있게 가지는 준비를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5. 갱년기 이후의 장애

여성에게 월경이 사라지는 폐경기를 전후한 시기를 갱년기라고 한다. 갱년기에는 난소의 활동이 점점 줄어서 월경의 주기나 양이 불규칙하게 되며 무배란성의 월경이 섞여 나온다. 이것은 호르몬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지만 이 호르몬의 혼란은 간뇌를 통해서 자율신경의 활동에도 문제를 야기시켜 여러가지 신체적인 이상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즉, 땀이 많이 흐르고, 구토, 식욕부진, 변비, 관절통, 수족의 저림증상, 귀울림, 불면, 불안, 우울, 기억력 감퇴, 머리가 멍해지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증상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허전한 마음을 통해 증폭된다는 진단이 있듯이, 즐거운 인생을 살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개개인의 밝은 생활을 위해 좋다. 간혹 갱년기가 되면 여자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된다고 비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기간자체를 그간의 좁은 틀을 벗어나 성숙한 인간을 완성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건강하고도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홍은정 기자

남성이 만들어낸 영화속의 여성들

유지나(영화평론가)

영화는 예술이 되기 전 애초부터 구경거리로 시작되었다. 정신의 고상한 활동을 위한 예술로서의 영화, 혹은 자신의 삶과 사회를 보다 치열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영화를 주장하는 영화존재론과 미학이 영화교과서를 채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둘러싼 영화는 대중의 시각적 쾌락에 봉사함으로써 돈을 벌기 위한 영화장사꾼들의 상품들로 대부분 채워진다. 그리하여 거대한 음모가 영화에서 시각 메카니즘과 결합한다.

대중에게 볼거리를 선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출발한 영화는 최고의 볼거리로 '여성'이란 메뉴를 개발해 왔다. 요부와 요조숙녀, 혹은 이 둘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여성상은 남성의 삶에 종속된 여성을 이상형으로 제시해 보임으로써 사회의 성차별주의와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쾌락의 담론을 재생산해 왔다.

남성 제작자에 남성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남성 촬영감독, 남성 배급업자들로 채워진 남성적인 영화작업현장에서 극히 소수의 여성을 제외하곤 남성 시선에 소비되는 댓가로 부와 명성을 기대하는 여배우가 유일한 여성적 존재라는 상황도 이런 악순환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러다가 60년대 후반 이후 서구에서 일기 시작한 페미니스트 대중문화 비평이 여성의 상품화와 왜곡된 이미지로 밀어부쳐온 영화에 도입된다. 그후 영화에 사회에서의 여성상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문제점과 음모가 드러나게 된다.

페미니스트 영화비평은 남성의 우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을 수동적 위치로 타자화하는 영화 메카니즘의 구조적 장치들을 뒤집어 읽는데 집중하면서 전문적인 영화연구의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영화에서 관객의 시선을 유도하는 카메라의 시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늘 남성의 시각적 쾌락에 의해 여성의 신체를 소비함으로써 남성의 눈에 드는 섹시한 여성을 이상형으로 강화해 온 메카니즘이 드러나게 된다. 영화 산업이 여배우를 스타로 만드는 방식은 섹스 여신(마릴린 몬로에서 샤론 스톤에 이르기까지) 이미지를 통해서이며, 그녀들은 남성의 시선이 없는 한 존재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여성을 타자화시킨다.

최근 미씨족 바람피우기라는 도전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엄마에게 애인이 생겼어요』는 당연히 여성 주인공 관점에서 여성관객에게 말을 거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바람피우는 정선경의 나신만을 카메라가 집중적으로 더듬는다. 대체 영화의 이야기 자체가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를 위해 구성 되어야 하는가라는 기본조차도 무시할 정도로 남성시선은 지독하게 군림한다.

보는 자(시선을 가진 자)는 남성이며, 여성은 보여지는 대상이라는 시선의 공식은 여성을 훔쳐보기 쾌락(관음주의)의 대상으로 물신화시킨다.

따라서 여성관객 역시 남성화된 시선의 영화보기에 세뇌되게끔 영화 시선의 메카니즘은 구조화되고 있다. 최근 뒤늦게 개봉된 『엠마뉴엘』같은 소프트 포르노가 서양에서는 중년 남성관객용인데 반해 한국에선 의외로 중년주부들이 주관객층이었다. 이 현상은 특히 우리사회에서 여성시선의 남성화 현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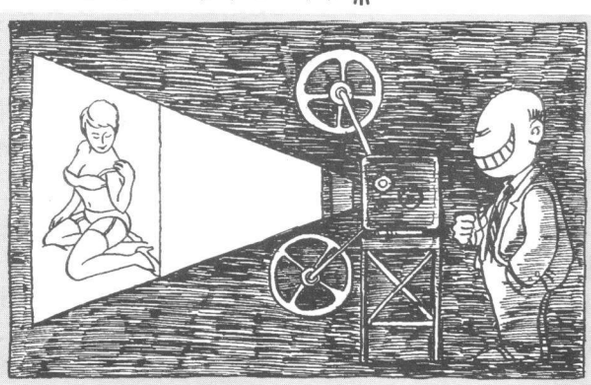
특히 여성의 성욕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남성정욕의 대상으로 물신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은 남성을 유혹한 악녀로 묘사되어 체단되는 것이 정석이고 (「위험한 정사」 등의 경우), 남성은 집에 돌아오는 한 혼외정사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가부장적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헐리우드영화에 등장하는 강한 여성상이나 한국영화에서 자신의 일을 가진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겨루는 삶이 묘사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겉치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일을 가진 여성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야 비로서 해피 엔딩으로 끌고하는 것은 교묘한 위장술일 뿐이다. 게다가 헐리우드의 최근 영화들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집나간 어머니로 해석하는 반동적 징후를 보이기도 한다. 부성애를 강조한 『미세스 다웃파이어』, 『마더스 보이』, 『가을의 전설』같은 영화에선 자신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못된 어머니들을 악녀 내지는 방관자로 묘사함으로써 여성에게 가정과 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윽박지르는 듯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성이 가정을 지키지 않아도 남성끼리 다 해낼테니 아버지와 아이들 사이를 방해하지나 말라는 오만이 내비치기도 한다.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거칠게나마 살펴본 이런 대중영화의 성차별 음모가 쉽게 폐기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여성의 시선과 주체성을 가진 영화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작업을 통제하면서 영화현장에서 반성차별주의 관점의 대안영화를 만들어 성공시키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작업에는 여성의 주체적 시선과 삶을 지지하는 관객과 비평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반쪽이



『낮은 목소리』의 변영주 감독

변영주(영화감독)

지난 5월 12일, 영화 『낮은 목소리』가 상영되던 동숭아트텍에서 이 영화의 감독을 맡았던 변영주씨를 만났다. 상기된 얼굴로 영화상영의 막바지까지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에는 '할일을 해버린' 당찬 자신감과 후련함이 배어 있었다.

굉장히 바쁘신 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월간지에서는 이번 영화를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가 될 것이라는 평까지 하고 있는데, 찬사와 격려가 끊이지 않는 요즈음의 감회나 느낌은 어떠신지요?

감사한 말씀인데요, 이 영화가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라고는 추호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 영화가 반일적인 혹은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보일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영화를 보고'라는 관객이 쓴 글 중에(그녀는 영화관 곳곳의 벽에 관객의 평이나 느낌을 적는 대자보를 붙여 놓았다) 일본에 대해 적의를 드러내거나 이겨야 된다고 성토하신 분들은 영화를 제대로 못 읽으셨다고 생각해요. 반일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영화라고 보기보다는 세계전쟁사 중에서 언제나 철저하게 폭력의 대상이 되어온 여성들을 그리려한 영화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폭력의 대상이 되어온 할머니들, 한국의 여성들, 아시아의 여성들에 초점을 맞췄고, 그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나온 할머니의 나신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91년도에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1』을 만드셨는데, 그 작품의 연장선 안에 이번 작품이 놓여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어떤 연장선 안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다른 내용이고... 하지만 이 영화의 도입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시아 1』의 한 여성의 어머니가 모티브가 되어서 이 영화가 나온 것이고, 한편으로 『아시아 1』의 내용이 상당부분 이번 영화에 재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좀 더 완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시아 1』보다 통하는 부분이 이번에 있다고 봅니다.

영화를 보면 과거의 이야기를 다룸에도 카메라는 고집스럽게 '현재'를 향하고 있는데, 그런것은 우연인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조명하려는 시도라고 보아야겠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우린 과거 얘기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정신대라고 하면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이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여명의 눈동자' 처럼 낭만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도 있고.…. 그러기에 오히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짐을 진 현재의 할머니의 모습이었고, 그분들이 과연 증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나였고, 94년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희망은 무엇인가였어요. 저희는 끊임없이 현재의 이야기로 전화(轉化)시키고 싶었던 거죠. 현재의 이야기가 될 때, 과거의 이야기도 자신의 문제로 다가설 수 있다고 보았어요.

다음 영화가 극영화일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극영화니 다큐멘터리니의 문제는 형식의 문제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만들 것인가, 무엇을 만들것인가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 확실하게 결심하는 것은 할머니들에 관한 계속적인 다큐멘터리 작업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찍으려해요. 이를 위해 나레이션이나 정형화된 의도없이 할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작품 하나와 철저하게 자신이 개입해서 어떤 '성(性)'과 '성의식(性意識)'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년 정도에 다른 작업을 할 생각인데, 극영화를 할 가능성이 커요.

'살아있는 과거를 함께 책임지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책임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직접적으로 '배상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도 안되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에 대한 시각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할머니들을 더럽다든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고 하는 등의 의견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배상'등이 어떤 문제가 되겠냐는 거지요. 이건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상담소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여성의 문제일 거에요.

저의 경우 영화를 본 다음에는 온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가 되었는데, 하물며 영화를 만드신 분께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화 만들 때의 힘든 과정을 지탱시켜준 것은 어떠한 것이었나요?

할머니들로부터 얻은 부분이 컸어요. 저희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할머니가 필름 값이 없으면 당신께서 도와주시겠노라고 만원을 꺼냈을 때, 저희에겐 1억원 이상의 힘이 되었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웃으며)빚진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이렇게 찍는 사람과 찍는 대상의 관계가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느껴져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더 이상 손해 볼 것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물러설 필요도 없고, 물러서고 싶지도 않은… 삶을 하나의 'Hit and run'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구요.

늠름하게 보이는(결코 과장이 아니다) 변영주 감독은 이화여대 법학과 85학번이고 중앙대 영화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영화제작소〔장산곶매〕에서 일했던 그녀의 첫 극영화는 「작은 풀에도 이름있으나」였고, 이어서 「우리네 아이들」, 「전열」,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1」을 만들었다. 변영주 감독은 인터뷰 내내뭔가 지시꺼리를 찾아 긴장한 모습으로 사방을 둘러보는 행동가다. '원하는 것은 일단하고 본다' 그리고 잘못된 경우 '그만 두면 된다'는 것이 그녀의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그가 보는 영화란 '반영의 현실'이다.

김병준 기자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춧돌, 상담원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려고 지난 4년간 애써오신 분들, 우리 상담소에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소와 함께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얼굴을 가꾸어 오신 그 분들, 바로 상담원 선생님들 입니다.

지난 91년 상담소가 문을 열면서 밀려오는 그 많은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힘이 된 16명의 상담원들로 출발하여 95년 6기 상담원까지 총 121명의 상담원이 배출되었고 현재는 35명의 상담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원들은 상담을 통해 만나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줄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원하는 해결 방법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활동 이외에도 부서모임과 소모임 등을 통해 상담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모임으로는 상담부에서 주관하는 '상담사례연구모임', '더 좋은 상담을 위한 모임', '법정지원모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원서읽기 모임'을 통해 성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론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임으로는 '성문화 읽기' 비평 모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성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달에 한번씩 '열림터 운영위원모임'과 '상담원 월례모임'이 있습니다. 부서모임과 소모임을 제외하고 두 달에 한번씩 갖는 '친목모임'에서는 상담원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교육프로그램(사이코드라마 참관, 정신분석 특강, 기타 공공단체들의 상담사례연구, 심포지엄, 세미나)에도 참여하여 재교육의 기회를 넓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교육 차원에서 원고 투고와 특강을 하는 등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전문 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년 한차례 있는 상담원 교육을 받은 후 실습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본 상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성폭력 전문 상담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28명의 7기 교육생이 성폭력 전문 상담원이 되기 위해 상담소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원 선생님들이 성폭력 피해여성에게는 따뜻한 언니로,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는 주춧돌로서의 역할을 멋지게 해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 상담사례연구모임

▲ 상담원 교육 수료식에서

이규화 기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나눔터회원】
강정희, 송정희, 이옥자, 홍사율

【새로운 후원회원】

권재민, 김범수, 김애띠, 최성호, 최희정, 황정진

【도서 기증】
조유경 -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사례집

【물품 기증】
심창교 - 컴퓨터

【기부금】

김장숙(정무 제2장관)

박금자(박금자 산부인과 원장), 정경자(본상담소 회원)

만든이 : 김병준, 안승하, 연민이, 이규화, 이수지, 이진상, 장윤경, 홍은정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상담전화

일반상담:02) 529-4271~2

위기센터:02) 573-1888

유한국성폭력상담소

일반상담:02)529-4271~2

위기센터:02)573-1888

법률 · 의료 · 심리상담

강간을 비롯한 성추행, 성적희롱, 음란전화 등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정신과의사·산부인과의사·법조인·경찰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일반상담 : 월 ~ 금, 오전 10 - 오후 5시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위기상담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24시간
-면접상담 : 화, 목, 오후 2시 - 5시
-서신상담

여러분의 조그마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 **상 담 원** :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여성학 교육 / 상담원 교육)을 수료하면 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 **나 눔 이** :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보조, 자료정리, 번역,…
- **위기센터지킴이** : 위기센터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 상담원, 병원, 경찰에 연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물 품 기 증** :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 **후 원 회 원** : 후원회원이 되면 소식지 「나눔터」와 자료들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상담소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비는 고통받는 피해여성들을 위해 쓰입니다.

■온라인 구좌번호

국민은행:009-01-1176-632 성폭력 상담소

농 협:037-01-194301 성폭력 상담소

소식지 「나눔터」와 함께 하세요!!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1년 구독료 5천원을
위의 온라인 번호로 납입하신후 본 상담소에 주소를 알려 주시면
계간 〔나눔터〕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